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박사



겨울철 날씨인데 은화했다. 7도 남짓한 온도와 가벼운 외투만 걸쳐도 충분했다. 스카프를 느슨하게 두른 채 길을 나서기에 더없이 적당했다. 전북 고창으로 향하는 길은 들만 위로 미세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지만, 시야를 완전히 흐릴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서쪽 특유의 유연한 지형과 겨울빛이 어우러지며 묘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풍경 속으로 새롭게 문을 연 황윤석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개관 소식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단지 새로운 공공시설이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설계자가 유현준 건축가라는 사실이 지역사회가 다른 이웃 마을까지 전해져 왔다. 유현준은 늘 ‘건축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머무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축가로, 이번 황윤석 도서관도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는 시민의 모습을 그리며 설계를 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공공도서관이 어떤 공간 전락으로 시민을 맞이할지, 그 자체가 하나의 관찰 대상이 돼 궁금하던 차에 시간을 내게 됐다.

도서관 첫 입구에서부터 기와를 닦은 지붕과 곧 뻗은 나무는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잠시 도서관 입구에 서서

역사와 자연을 담은 황윤석 도서관

고창의 주변 산과 건물의 어우러짐을 만나 보았다. 첫인상은 개방감이며 자연광을 아낌없이 들이며, 동시에 지나치게 밝지 않도록 조도 균형을 잡은 흔적이 보인다. 건물 내부의 중심부에는 넓은 공용 공간이 배치돼 있다.

이용자들은 이 공간을 지나며 각각의 열람실, 어린이 공간, 휴식 공간으로 흩어진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이러한 공간을 가진 고창 시민이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다만 어린이 공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가 많았는데 한쪽 공간에 밀쳐 놓은 느낌이었다. 책을 가장 많이 만나야 하는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온 시민이 많아 더 넓은 공간을 쫓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시대 학자 이제 황윤석을 얻을 담은 도서관은 ‘과거를 품고 내일을 읽는다’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도서관이 자연을 담은 방식이다. 일반적인 도서관이 책장 중심의 시야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높이의 창을 배치해 머무는 위치마다 다른 풍경을 조각처럼 보여준다. 책을 읽다가 문득 시선을 들어 바깥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연과 만나는 순간 시야가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 내부 동선은 직선적이면서도 단조롭지 않다. 특정 기능을 분리하기보다 공간 사이의 경계를 느슨하게 설정함으로써, 이용자가 목적 없이도 방랑하듯 곳곳을 탐색하게 만든다.

이는 도서관을 단순히 지식 습득의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머무는 시간 자체가 행복하도록 설계한 열린 경계가 공간에서 잘 드러나 보였다.

황윤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학자적 양심을 지켰

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이 그의 이름을 단 것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듯했다. 고창 도서관이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동시에, 그 정신을 현대적 건축 언어로 번역해 지역 시민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중심 기능을 재정립하는 공간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곳을 넘어, 소통, 문화, 휴식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공간을 몸과 언어로 느끼면서 이런 도서관이 있는 자체에 부러운 마음과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을 뒤돌아보며 그 자리를 벗어나

나들이 삼아 찾아온 도서관에서 가벼운 만화책을 읽고 도서관을 나서며 입구에서 바라보니 종묘 정전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는 기사가 생각났다. 나무와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지붕을 바라보면서 고창의 산등성이와 푸른 하늘을 담고 있는 풍경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을 나서서 길, 다시 겨울빛이 들뜬 위로 높고 있었다. 건물 안에서 본 풍경과 바깥에서 바라본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좋은 건축은 늘 외부와 내부, 이용자와 공간, 지역과 세계 사이의 편안함이 그곳에 머물게 한다.

황윤석 도서관은 건축가의 생각처럼 나뭇가지 아래서 책을 읽고 시민의 삶의 모습이 보여 고창이라는 작은 도시의 풍경 속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건축적 여백을 남긴다는 점에서 빛나는 공간으로 많은 이웃이 부러운 마음으로 만나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

기고

조성은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멘토



전역은 흔히 ‘새로운 시작’이라 불린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섣불리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가깝다.

계급과 명령, 명확한 역할과 목표 속에서 살아오던 삶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세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나는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수많은 전역 장병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과연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나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다. 2002년 예기치 못한 전역을 맞이했을 때, 사회는 햇빛처럼 밝기보다는 차갑고 높은 벽처럼 느껴졌다. 지금처럼 체계적인 전역 지원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나는 홀로 전로를 고민하며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군에서의 시간은 과연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대학 외부 강사 활동을 하며 복지 현장을 접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나를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소명으로 이끌었다.

군에서 배운 책임감과 조직 이해력, 그리고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복지 현장에서 놀라울 만큼 잘 맞

전역 이후, 우리는 다시 ‘사람’을 지킨다

아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만나는 후배들은 과거의 나와 닮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그들 곁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상담사 선생님들, 그리고 한 명의 제대군인이라도 더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애쓰는 센터장님의 모습은 늘 깊은 감동을 준다.

가끔은 “우리 전역할 때도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러움이 들 정도다. 그러나 과거의 막막함이 있었기에 행복의 내가 있고, 이제는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믿는다.

많은 전역 군인들이 사회복지 분야를 낯설게 느낀다. 하지만 군만큼 사회복지사와 잘 맞는 직업도 드물다. 군에서의 경험은 그대로 실무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휘와 통솔은 사례관리 역량으로, 작전 기획과 행정은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능력으로, 부대 관리와 소통 경험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능력으로 이어진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대응 능력은 긴급 복지 개입 현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군의 언어를 복지의 언어로 바꾸는 순간, 전역 군인은 이미 준비된 인재가 된다.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것은 세 가지 덕목이다.

첫째, 인성·기반한 복지 현장에서 군에서 단련된 담

합은 중심을 잡아준다.

둘째, 지혜-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찾아가는 인내는 군인이 가진 강점이다.

셋째, 경청-명령보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 귀 기울이는 태도는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다.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전락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운전면허,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은 필수다. 동시에 이력서에서는 군대식 표현을 작무 중심 언어로 재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임원사 역임’은 ‘조직 내 갈등 조정 및 구성원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된다. 또한 봉사활동 기록과 같은 현장 경험은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 협업 도구 활용 능력도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최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전역 군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시기다.

사회로 나아가는 햇빛이 두렵게 느껴지는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 멘토들이 있다.

직업군인으로서 우리는 ‘국가’를 지켰다.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는 ‘사람’을 지킨다.

충성으로 다져진 사명감이 열린 봉사로 피어날 때, 전역 이후의 길은 막막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오늘도 후배들과 함께 걷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통합 이후 재정 운용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개별 지자체 단위로는 대기업 유치나 첨단 산업 육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광주·전남이 각자도생을 이어간다면,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행정통합의 성패는 ‘행정’이 아니라 ‘경제’에서 판가를 날 것이다. 통합 이후 몇 개의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기업 활동의 불편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구호가 아닌 숫자, 선언이 아닌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통합이라면 명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합 찬반의 구조 경쟁이 아니라, 통합 이후 광주·전남 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하고 구체적인 설계다.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논의로만 남은 지역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설

GGM ‘2교대 전환’ 땀 일자리 1000개 창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올해 첫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에 청년 구직자들이 예전처럼 대거 몰렸다.

47명 모집에 1596명이 지원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공채에서도 각각 26대 1, 36.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신규 채용은 현대차의 경쟁 스포츠유틸리티차 ‘캐스퍼’의 국내 외 판매 호조로 인한 설비 시설 증설에 따라 이뤄졌다.

GGM은 ‘캐스퍼’를 연 5만8400대 생산하며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8%(2800대) 증가한 6만1200대를 생산하기로 하고 72억여 원을 투입해 설비 증설 공사와 함께 추가 인원이 필요해 이번 공채를 실시한 것이다.

광주 시민과 자치단체, 노사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지난 2019년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기업인 GGM은 그동안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2021년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가 2021년 1만2353대,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29대, 지난해 5만8400대 등 총 21만 8782대를 생산했다.

생산량 증가세속에 일자리도 많아져 2021년 555명이었던 직원은 지난해 706명, 이번에 50여 명이 추가될 경우 750여명으로 늘게 된다.

특히 이들 직원의 90% 이상이 광주·전남 출신이고 20~30대 젊은층이 85%에 달한다는 점과 2021년 3100만원이었던 기술직 평균 연봉도 지난해 49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GGM의 대규모 고용 확대는 올해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경제계가 기존 무교대 방식을, 직접 고용 400명, 협력업체 600명 등 최대 1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주간 2교대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노조의 전체 파업 13회, 부분 파업 18회 등 146회 파업을 실시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역경제계는 보고 있다.

구직난과 저임금 구조에 애가 탄 지역 청년들의 ‘최애 기업’이 되고 있는 GGM이 설립 취지에 맞게 노사가 대타협하는 지속 가능한 강소형 기업이 되길 바란다.

광주 송정역 ‘호남 대표 관문’ 역할해야

광주 송정역을 ‘호남 대표 관문’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광주 광산구가 고속열차(KTX) 등을 이용해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곳의 넓은 건축물 등을 철거, 광장으로 확장하고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8년 예정된 역사 증축에 맞춰 시민이 모이고, 머무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는 물론 교통혼잡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역사에서 광주공항 방면에 위치한 여인숙 등 노후 건물을 철거해 9520㎡(약 2880평) 부지를 확보, 광장으로 확장하고, 보행·녹지·문화공간 등을 조성기로 했다. 사업 완료시 송정역 광장 면적은 약 1만3120㎡(약 3968평)로 늘어난다.

또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의 승·하차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상습적인 교통 혼잡 문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1055억원으로 추산되는 데 역 광장이 철도시설에 해당돼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사실 이 곳은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교통 관문으로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광장과 외부 공간이 협소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루 이용객은 KTX 개통 전인 2015년 3327명에서 최근 2만7000여명으로 급증했고 2030년이면 3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가철도공단이 역사 면적을 2배 가까이 늘리고 넓은 대합실·승강장·편의시설을 개선하는 확장 공사를 추진 중이지만 광장은 이 사업에서 빠져 있다.

현재 송정역 광장 면적은 3600㎡로 동대구역(2만5638㎡)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주변 유동 인구는 이미 하루 4만여명을 넘어섰는데 택시승강장은 16면, 버스승강장은 2면에 그쳐 대중교통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대로변 승하차로 인한 교통 혼잡도 심각하다.

송정역이 호남 대표 관문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취재수첩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주는 경제적 변화는?

이승홍

경제부 부장



“행정통합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도민과 기업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유는 단순하다. 통합의 명분은 크지만,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가 아직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의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규모의 경제가 꼽힌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경우 인

구는 320만명을 넘어선다. 산업단지, 항만, 공항, 연구기관, 대학, 농수산 기반까지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 투자 유치와 산업 배치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나 국가사업 유치에서도 ‘광역 단일 창구’가 갖는 무게감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이 가능성이 아직 ‘가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통합 논의가 행정 구조 개편이나 정치적 당위에 치우친 반면, 지역 기업과 일자리,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우려도 적지 않다. 광주는 산업·서비스 중심, 전남은 농수산·에너지·관광 중심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경제적 시너지’보다는 ‘재정 부담 분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